

영암교육청, 고3 수험생 대입 수시 컨설팅 고민 함께 나눔

진학지원단, 컨설팅 사전접수 신청 학생·학부모 대상 학생 1명 당 40여분 동안 수시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9월 5일 나주권역 진학지원센터와 연계한 2021. 대입 수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관내 고3 수험생과 학부모가 참가한 이번 행사는 9월 23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021. 대입 수시모집을 대비하여 실시되었다.

진학지원단 18명이 컨설팅 사전접수를 신청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1명 당 40여분 동안 수시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입 수시 컨설팅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등교 제약, 상담 시간 부족 등의 고민을 안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의 고민을 시의 적절하게 해결해주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행사 실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간이 넓은 강당에 상담실 설치, 외부 공간에 대기실 설치, 상담 테이블별 2미터 이상 거리 확보, 행사 전 컨설팅 장소 소독, 마스크 벗지 않기를 위한 실내 음식물 취식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시되었다.

영암교육 학부모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이번 대입 수시 컨설팅은 영암지역 고3 학생들이 수시에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녀의 진학에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던 학부모들의 걱정도 함께 해결해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컨설팅에 참가한 영암여고 3학년 나O

○ 학생은 “이번 수시에서 어떤 학과를 지원해야 할 지를 고민했는데, 컨설턴트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신문방송학과쪽으로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며, “마치 담임 선생님처럼 정성스럽게 수시 상담을 해주신 두 분의 컨설턴트 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삼호고 3학년 윤OO 학생은 “컨설턴트 분들이 직접 입시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상담을 해주셔서 신뢰할 수 있었으며,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안내해주셔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컨설팅에 자녀와 함께 참석한 영암여고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직접 상담을 받으면서, 아이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남은 시간 아이와 함께 고민하면서 아이에게 맞는 학과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교육지원청 김성애 교육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번 행사 진행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 지역 고3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입



시에 대한 답답함 해소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추진하였다.”며, “이번 컨설팅에 적극 협조해준 나주권역 진학지원단에 감사드리며, 앞

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영암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영암=조대호기자

광양중마초, 신나는 요리체험으로 더 즐거운 영어캠프

원어민과 함께하는 활동중심 영어캠프·파닉스 캠프 운영

광양중마초등학교(교장 이상인)는 지난 8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Snacks around the World'(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간식)이라는 주제로 활동 중심 영어 캠프를 운영하였다.

이번 영어 캠프에서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여러 나라의 주요 문화와 음식, 직접 요리하게 될 음식의 요리법 등을 배워 보았다.

또한, 친구들과 협동하여 요리를 직접 만들고 스포츠 활동도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 위주로 운영되었다.

모든 활동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여름 방학이었지만, 캠프를 통해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함께 요리도 하고, 게임도 하는 등 즐거운 추억 거리를 만들 수 있었다고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였다.

또한 파닉스 캠프는 평소 영어 기초 부족으로 어려워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3개 반이 현재 운영 중이다.

광양중마초등학교(교장 이상인)는 “코로나로 인해 짧은 여름 방학이지만, 영어를 배우겠다는 열정으로 학교에 나와 열심히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견하다. 이번 원어민 선생



님의 영어 캠프를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여수책소리' 서평쓰기사업 실시

위드코로나 시대 독서교육 활성화

여수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에서는 지난 1일부터 위드코로나시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수 책을 소개하는 리뷰(이하 여수책소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업은 위드코로나 시대 온라인수업에서 오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수교육지원청에서는 독서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여수책소리'서평쓰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수책소리'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1~2줄 쓸 수 있도록 여수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여



기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매주 5~7명의 학생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주어 학생들에게 더욱 독서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9월 1주에도 6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선물을 배부하였으며, 12월까지 계속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광주동부교육청, 학원 '야간 합동점검' 실시

실내 10인 미만 운영 및 마스크 착용 중점 확인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일과시간 이후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지자체와 함께 3팀(2인1진)을 구성해 오후 6~10시까지 북부지역 학원 20여 곳을 방문해 한 실 당 10인(9명까지 가능) 교습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학원들의 경우 일과시간(오후 6시 이전) 중에는 초등부 학생이, 일과시간 후(오후 6시 이후)에는 중·고등부 학생이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대체로 학원 관계자 및 이용자들 모두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고, 한 실 당 9명까지 이용 제한에 대해서도 잘 준수하고 있었다.

또 학생이 많은 경우 실을 분산해 운영하고 있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 내 학생들이 동일 시간대에 함께 이동할 경우 밀집·밀접·밀폐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등·하원 및 쉬는 시간 등을 조정해 학생들이 분산 이동 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조인호기자

나주교육청, 학교정보화기기 관리업무지원 교직원 업무 경감

학교 정보화기기 자원파악·정보화 관련 현장컨설팅 진행

나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정보화기기 자원파악과 정보화 관련 현장컨설팅을 9.7.부터 12.11.까지 진행한다.

학교현장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상 및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 디지털복합기 인증 및 보안조치, 학내망 예방조치 등의 지원을 통해 교직원 업무경감이 예상된다.

또한 나주교육지원청은 지난 3.1.부터 정보화기기 유지관리를 통합계약하여 27교 1분교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 6개월간 PC장애상담과 기술지원으로 442회 학교방문과 830건의 장애요청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 정보화기기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맞춤형지원

을 하고자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을 지원하여 컴퓨터 성능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경길 교육장은 “우리 청의 정보화지원 사업이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개선 사항들이 도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더 만족스러운 정보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